

康津 無爲寺 極樂殿과 後佛壁畫의 조성배경

裴鍾玟 *

목 차

- I. 머리말
- II. 극락전의 건립배경과 孝寧大君
- III. 극락전 阿彌陀後佛壁畫의 조성배경
- IV. 맺음말

< 요약 >

이 연구의 주제는 無爲寺 極樂殿의 건립과 後佛壁畫의 조성배경을 살펴본 것이다. 무위사 극락전이 건립된 것은 世宗 12년(1430)의 일이었으며, 후불벽화는 成宗 7년(1476)에 조성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抑佛政策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위사에서 어떻게 극락전의 건립이 가능하였고, 누가 벽화의 조성에 참여하였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무위사 극락전의 건립은 指諭와 大化主, 그리고 施主가 주도하였다. 이들 중 가장 중요시된 것은 자유였다. 특히 指諭 孝寧은 孝寧大君 李補와 동일인물로 믿어진다. 무위사 극락전의 건립은 資福寺와 水陸社로 공인된 데 힘입은 佛事였다. 자복사는 王室의 冥福을 기원하는 願刹의 성격을 지닌 사찰이었으며, 수록사는 水陸齋를 베풀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사찰이었다. 수록재는 敵을 포함한 戰亡者와 모든 亡靈을 위로하는 불교의식이었다. 자복사와 수록사에는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이 뒤따랐다. 따라서 효령대군의 무위사 불사참여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무위사 극락전 阿彌陀後佛壁畫는 康津으로 낙향한 兩班과 土着勢力이 주도하고 大禪師와 良人 婦女子, 部曲民과 奴婢가 동참한 불사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위사가 수록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수록사에서 베풀어지는 수록재는 모든 亡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왕실부터 서민에 이르는 폭넓은 참여계층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 2년에 수록재가 공인된 유일한 喪禮가 되면서, 왕실의 救病부터 전염병의 방지를 기원하는 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과 참여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무위사가 자리잡은 남해 연안지역은 倭寇의 약탈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이 당시에 阿彌陀信仰과 地藏信仰이 성행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왜구로부터 당하는 혹독한 고초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이 깔려있었다. 무위사가 수록사로 지정되고, 大雄殿이 아닌 阿彌陀如來를 本尊佛로 하는 극락전이 건립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이후 강진지역의 사람들은 신분의 구별 없이 무위사의 수록재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차츰 무위사 극락전을 수록사라는 寺格에 걸맞게 莊嚴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무위사 극락전이 건립된 후 46년 만에 극락전의 내부가 개조되고, 아미타후불벽화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전남대학교 박물관

I. 머리말

無爲寺는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사찰이다. 10세기 경에 창건된 유서 깊은 禪宗寺刹로서 극락전과 그 안에 그려진 벽화가 유명한 곳이다. 세종 12년(1430)에 건립된 무위사 極樂殿은 조선시대 초기에 세워진 柱心包 건축 중에서 가장 발전된 구조형식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국보 제 13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극락전 내부는 벽화들로 莊嚴되어 있는데¹⁾, 특히 성종 7년(1476)에 조성된 아미타후불벽화²⁾는 우리나라의 벽화가운데 가장 우수한 벽화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 초 송유억불의 정책으로 불교계가 매우 위축되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세종과 성종년 간에 무위사의 寺勢가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위사에서 어떻게 극락전이 건립되고 벽화가 조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였다³⁾.

조선전기에 불교계는 상당한 정치적 억압을 겪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위사는 태종 7년(1407)에 실시된 사찰척과에도 불구하고 資福寺와 水陸社로 공인되었고, 더 나아가 극락전을 건립하고 壁畫가 조성되는 성장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강력한 중앙정치세력의 비호가 없이 무위사의 중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孝寧大君(1396~1486)이 주목된다. 그는 세종 14년(1432)에 한강에서 7일간 수륙재를 개최하고⁴⁾, 회암사의 중창을 건의⁵⁾하였던 대표적인 好佛王族이었다. 특히 무위사 극락전이 준공되던 해에 시작된 백련사의 중창불사를 주도하였고⁶⁾, 讓位한 뒤에는 강진에 8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⁷⁾.

따라서 효령대군이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었던 무위사의 불사에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 1) 극락전 내부에 장엄된 벽화는 <극락전아미타후불벽화 (보물 제 1313호)>, <극락전백의관음도(보물 제 1314호)>, <극락전내벽사면벽화(보물 제 1315호)> 등이 있는데, 아미타후불벽화와 백의관음도를 제외한 나머지 벽화들은 따로 떼어져 보호각에 보관 중이다.
- 2) 벽화의 크기는 가로 210cm, 세로 270cm이며, 벽체는 진흙에 짚여물을 섞어 가지고 안팎으로부터 초벽과 맞벽을 치고 재벽질한 후 그 위 새벽질은 화강암이 풍화한 백토와 다투물을 혼합하고, 또 회도 약간 사용되었다. 이와같이 벽질한 후 다시 그 위에 황토물을 가지고 벽색을 칠하여 이것을 바닥으로 해서 벽화를 그렸다.(國立博物館 編, 1954. 『無爲寺 極樂殿 修理工事 報告書』(문교부), 16 -17.)
- 3) 무위사 벽화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하라.
文明大, 1976. 「無爲寺 極樂殿阿彌陀後佛壁畫試考」, 『考古美術』(韓國美術史學會) 129·130 합집:裴鍾玟, 1999. 「康津 無爲寺 極樂殿壁畫研究」,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장충식, 2001. 「무위사 벽화 백의관음고」 『정토교와 한국문화』(한국정토학회)
- 4) 『世宗實錄』 권55, 1432(세종14)년 2월 癸卯條
- 5) 『世宗實錄』 권64, 1434(세종16)년 4월 庚申條
- 6) 尹准, 『萬德山白蓮社重創記』
- 7) 한국문화개발사, 1972. 『朝鮮寺刹史料』上, 308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무위사와 효령대군과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무위사가 抑佛의 정치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번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에는 수 십 명의 이름이 적힌 畫記가 남아있다. 이들은 壁畫의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로서 郡夫人·前職縣監·大禪師를 비롯해서 노비로 생각되는 사람까지 다양한 신분 구성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인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벽화의 조성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극락전 후불벽화의 조성배경의 일단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II. 극락전의 건립배경과 孝寧大君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崇儒抑佛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태종의 사찰혁명⁸⁾과 세종의 禪教兩宗의 통폐합⁹⁾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전국의 수많은 사찰들이 혁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교계의 활동에 상당한 정치적 제약이 뒤따랐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큰 규모의 불사가 없지 않았는데, 이러한 불사의 배후에는 대부분 왕실의 지원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¹⁰⁾. 전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암 도감사의 중창에 세조와 수미대사가 관계하였고¹¹⁾, 강진 백련사의 불사도 효령대군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던 것이 다¹²⁾. 그리고 이는 무위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위사에 극락전이 건립된 것은 세종 12년(1430)의 일이었다. 그런데 극락전의 중앙간 宗道里長舌에서 다음과 같은 墨書銘이 발견되었다.

A.

大化主普□持寺賢右信玄六熙海□信宗義明覺行惠□覺□玄存
少朱得明金守南金□李□孝

8) 『太宗實錄』 권11, 1406(태종6)년 4월 丁巳條

9) 『세종실록』 권24, 1424(세종 6)년 4월 庚戌條

10) 文明大, 1986. 『世宗時代의 美術』(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73.

11) 『세조실록』 권7, 1464(세조 10)년 4월 乙未條

12) 尹淮, 『앞책』(주 6)

宣德五年五月十五日 指諭孝寧省眞信明性□性□戒正□□性龍□□

施主前左明金□□□□寺住持大遂信順徐揖(濼)希

먼저, 大化主는 賢右·義明·覺行 등의 승려들이 대부분이었고, 金守南 등의 일반인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었다. 대화주 가운데 ‘義明’은 성종 4년(1473)에 건립된 靈巖 道岬寺 解脫門 불사에 참여하였던 副木 大禪師 ‘義明’과 同名人이다. 그런데 이 둘은 그 활동시기와 지역을 고려하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도감사의 불사는 세조의 후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으므로¹³⁾, 의명은 중앙에서 파견된 승려로 파악된다. 이러한 그가 무위사의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컨대, 대화주로 기재된 승려들도 비중 있는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施主는 前左明 金□□를 비롯하여 □□寺 住持 大遂와 信順 그리고 徐揖希가 있었다. 前佐命 金□□가 혹시 佐命功臣이 아닐까하여 공신록을 검토하였지만 명단에 없었다. 信順은 양녕대군을 포함한 혐의로 의금부에 구금된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었다¹⁴⁾.

지유¹⁵⁾로 기재된 인물들은 孝寧·省眞·信明·性□·性□·戒正·□□·□□性龍·□□이다. 이들 대부분이 승려였던 것으로 보아, 극락전의 건립을 주도한 인물들로 생각된다. 信

13) (주 11)

14) 『世祖實錄』 권18, 1459(세조5)년 11월 乙巳條

15) 지금까지 지유의 성격을 고려시대의 기술직 하급관료인 木業指諭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통용되어 왔다. (문화공보국·문화재관리국, 1893, 『康津無爲寺極樂殿修理報告書』 51.) 그러나 麗末鮮初 寺刹의 建立 記文은 건립연대·化主·施主者의 차례로 기재한 뒤 목수를 맨 나중에 그 직책별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역할의 輕重에 따라 그렇게 기재하였을 것이다. 무위사의 경우에는 건립연대 - 指諭 - 大化主 - 施主의 순서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위사의 경우처럼 지유를 앞세우는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건립기문이 남아있는 여말선조의 건물인 부석사 조사당(우왕 3년, 1377), 은혜사 영산전(우왕 원년, 1375), 정수사 법당(세종 5년, 1423), 도감사 해탈문(성종 9년, 1473)의 건립기문을 살펴보면 목수는 맨 나중에 그 소임별로 기재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유가 목수라면 시주자에 앞서 기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목수를 화주나 시주자 승려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 지유를 목수의 호칭으로 사용하였던 사례도 없다. 禱王 원년(1375)에 건립된 은혜사 영산전 건립기문에는 木手로, 동왕 3년(1377)에 세워진 부석사의 조사당 묵서명에서는 大木, 세종 5년(1423)에 건립된 淨水寺 법당과 성종 9년(1423)에 세워진 道岬寺 解脫門의 상량문에도 大木이 목수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일반적인 건축공장의 호칭은 木手나 大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위사의 지유를 목수로 파악한 견해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무위사 극락전에서 보이는 지유는 화주 정도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게 여겨진다. 지유와 관련한 논고는 (줄고, 「앞의 글」)에 자세하다.

명은 妙峯寺에서¹⁶⁾ 戒正은 興福寺¹⁷⁾에서 활동한 승려였다는 기록이 실록에서 발견된다¹⁸⁾. 흥복사는 흥천사·흥덕사와 함께 태조에 의하여 창건된 사찰이었다¹⁹⁾. 이곳에서는 신덕왕후²⁰⁾와 경순왕후²¹⁾의 忌晨齋가 베풀어지곤 하였는데, 효령대군이 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²²⁾. 따라서 신명·계정과 함께 지유로 기재된 승려들 또한 그 비중이 적지 않았던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묵서명의 지유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인물은 孝寧이다. 조선전기의 각종 불사에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孝寧大君 李補(1396 - 1486)와 同名인이기 때문이다²³⁾. 그는 앞서 살펴본 계정과 함께 흥복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²⁴⁾. 그리고 곡성 泰安寺에 大鉢을 發願하기도 하였다²⁵⁾. 그러나 무엇보다도 효령대군은 강진지역과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진에서 8년을 머물렀는가 하면²⁶⁾, 백련사의 중창불사의 大功德主로서 畝土 54斗 2升落을 기부하고, 토착세력들이 백련사의 불사에 가담할 수 있도록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²⁷⁾. 따라서 효령대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위사의 극락전 건립에 관여하였다고 믿는 것이 순조로워 보인다. 즉, 효령대군을 지유의 효령과 서로 같은 인물로 생각하여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무위사 극락전의 묵서명에서 지유를 대화주보다 앞서 기록하고,

16) 『世宗實錄』 권59, 1433(세종15)년 3월 己巳條

17) 『世宗實錄』 권13, 1421(세종3)년 8월 乙未條

18) 조선왕조실록에 그 행적이 찾아지는 극락전 묵서명의 인물들 역할

역할	指諭	大化主	施主
인명	孝寧·信明·戒正	義明	信順

19) 『세종실록』 권6, 1419(세종 1)년 12월 辛巳條

20) 『태조실록』 권14, 1398(태조 7)년 8월 丙辰條

21) 『세종실록』 권4, 1419(세종 1)년 7월 乙丑條

22) 『세종실록』 권8, 1420(세종 2)년 7월 戊子條

23) 효령대군은 회암사 중수를 건의하였으며(『세종실록』 권64, 1434(세종 16)년 4월 庚申條), 원각사 조성도 감도제조를 역임하였다(『世祖實錄』 권43, 1429(세종 11)년 3월 丙辰條). 1465년엔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언해하고, 같은 해에 원각경을 수교하기도 하였다.

24) (주 23) 효령대군은 흥복사를 원각사로 중창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흥복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세조실록』 권33, 1464(세조 10)년 5월 乙卯條)

25) 황수영 편, 1985.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423~424. 한편, 흥복사와 백련사, 태안사는 무위사와 함께 자복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26) 한국문화개발사, 1972. 『朝鮮寺刹史料』 上, 308

27) 백련사의 중창불사는 무위사의 극락전이 건립되던 해에 시작되어 이후 6 년만에 일단락이 되었다. (尹淮 『앞 책』 (주 6)

또한 지유의 맨 앞에 효령을 내세웠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무위사의 극락전 건립에는 효령대군과 함께 왕실과 밀착된 사찰의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왜 이들이 무위사의 불사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태종은 즉위 후 7년(1407)에 “사찰혁파로 불교계의 불만이 높으니, 대가람을 택하여 혁파된 사찰을 대신하고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자”는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名刹로써 資福寺를 대신케 하였다²⁸⁾. 따라서 혁파된 사찰을 대신하여 자복사를 지정한 태종의 조처는 불교계의 고조된 불만을 무마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그 결과 전국의 88개 사찰이 資福寺를 대신하였는데²⁹⁾, 무위사도 그 중 하나였다.

〈표 1〉 태종 7년에 자복사를 대신한 명찰

	曹溪宗	天台宗	華嚴宗	慈恩宗	中神宗	總南宗	始興宗	계
전국	24	17	11	17	8	8	3	88寺
전남	5	2	2	2	0	3	1	15寺
	迦智寺, 澄光寺, 桐裏寺 道岬寺, 萬德寺	無爲寺 大堀寺	金藏寺 香林寺	公林寺 鎮國寺		萬淵寺 普光寺 瑞峰寺	寂照寺	

자복사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그 대강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³⁰⁾.

B-① 聖壽天長隣兵永息師尊無疾長存先亡父母及法界衆生往淨界之愿陽根奉日鄉資福寺鉢子

28) 議政府請以名刹代諸州資福 從之 啓曰 去年寺社革去之時 自三韓以來大伽藍 反在汰去之例 亡廢寺社 差下住持者 用惑有之 僧徒豈無怨咨之心 若擇山水勝處大伽藍以代亡廢寺院則庶使僧徒得居止之處 於是諸州資福寺皆代以名刹(『太宗實錄』 권14, 1407(태종 7)년 12월 辛巳條)

29) 태종 7년(1407)에 전국의 88개 명찰로써 자복사를 대신케 한 조처를 자복사의 혁파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① 자복사를 혁파하였다면 굳이 88개 사찰을 나열할 까닭이 없으며 ② 조선 후기까지 자복사에 대한 기록이 보이며, 또한 왕실의 지원도 계속되었다. 즉 수원 용주사는 정조에 의하여 자복사로 지정되면서 국가적인 후원을 받았던 것이다.(龍珠寺大雄殿 上樑文) 따라서 태종 7년에 취해진 조처는 자복사를 혁파한 것이 아니라, 명찰로써 자복사를 대신하게 한 조처로 이해된다.

30) 자복사를 다룬 연구로는 <김윤근, 2000,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의 사원과 불교문화」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제 9호>이 현재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六重十斤造成功德者時太和七年丁卯二月日玄化寺大師大公

〈太和七年銘 資福寺鉢子銘文〉

B-② 奉先寺鍾銘并序 (전략) 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 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殿下龍飛九五光御金輪神化 旁洽民物熙皞積十有四年矣 臣民無祿奄爾 禮陟今我 主上殿下孝思罔極終天慕遠稽彝 典於禮經 庶 玄宮於坎隅適於其傍營刹資福曰 奉先寺鎔銅洪鍾 (중략) 是鍾鑿于六時豈特道侶發其 沈省迷倫息其苦趣必將冥達 (하략)

〈成化五年銘 奉先寺 銅鍾銘文〉

B-① 史料는 高麗 熙宗 3년(1207)에 제작된 ‘資福寺 金鼓’의 銘文³¹⁾이다. 현화사의 大師 大公이 국왕의 장수와 外侵의 종식, 亡父母의 정토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자복사의 반자를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시기에 자복사는 왕실의 명복을 기원하던 願刹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B-② 사료는 조선 睿宗 1년(1469) 8월에 조성된 ‘奉先寺 銅鍾’³²⁾의 鍾銘이다. 같은 해 2월에 예종은 世祖의 忌辰을 목적³³⁾으로 한 奉先寺의 역사를 증창하도록 한 바 있었는데³⁴⁾, 이때 동종도 아울러 조성된 것이다. 刑曹判書 姜希孟이 撰하고 吏曹參判 鄭蘭宗이 글을 쓴 鍾銘에 의하면, 예종이 선왕인 세조의 명복을 기원하고자 동종을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B-①의 자복사 金鼓의 조성목적과 방법에서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의 건국에도 불구하고 자복사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종 대 전개된 奉先寺의 重創佛事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다. 董役提調에 綾城君 具致寬·河城君 鄭顯祖·左議政 尹子雲 등이 임명되고³⁵⁾, 役夫³⁶⁾와 식량의 지원³⁷⁾, 稅外雜役과 노비잡

31) 資福寺 金鼓는 지름 32.2cm, 너비 6.8cm 크기로서 현재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銘文은 금고의 측면에 縱 2행, 64字가 새겨져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874) 한편, 『고려사』에서는 자복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32) 『睿宗實錄』권, 1469(예종 1)년 8월 庚辰條

33) 『睿宗實錄』권, 1469(예종 1)년 9월 戊子條

34) 『睿宗實錄』권, 1469(예종 1)년 2월 丁丑條

35) 『睿宗實錄』권, 1469(예종 1)년 8월 庚辰條

36) 『睿宗實錄』권, 1469(예종 1)년 2월 丁丑條

37) 『睿宗實錄』권, 1469(예종 1)년 7월 癸卯條

역이 감하여졌지는³⁸⁾ 등의 특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 12년(1430)의 무위사 극락전 건립도 동사찰이 태종대에 자복사로 공인된 것에 힘입은 佛事였다고 보인다. 태종 7년의 자복사의 공인이 名刹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로 전통적인 명찰이 대부분 자복사를 대신하였는데, 무위사 또한 10세기초 先覺大師 炯微에 의해 禪風이 크게 진작된 유서 깊은 古刹이었던 것이다³⁹⁾.

한편, 무위사는 개창 초부터 彌陀殿과 水陸殿을 경내에 두었을 정도로 水陸齋에 대한 오랜 전통을 지닌 사찰이었다⁴⁰⁾. 수록재는 敵을 포함한 戰亡者와 모든 떠도는 亡靈을 佛力에 의하여 환생하게 하는 불교의 재생의식이었다. 그리고 세종대 무위사의 극락전의 건립은 水陸齋와도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극락전 건립 당시에 쓰여진 '修設水陸'이란 명문에서 '水陸'은 '水陸社'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⁴¹⁾. 국가에서 국행수룩재를 베풀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한 사찰이 수록사였다. 따라서 수록사에는 國行水陸田의 지급⁴²⁾, 중창과 수리에 필요한 재원과 노동력의 제공, 노비의 지급과 각종 세액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⁴³⁾. 예를들어 上院寺가 혁파당하지 않고 오히려 강원도 교종의 本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수록사로 공인된

38) 『成宗實錄』권, 1470(성종 1)년 4월 甲寅條

39) 무위사 경내에 있는 先覺大師偏光榮塔碑(定宗 1년-946년 건립)에 의하면 선각대사 迺微(864-917)는 迦智山門 보조선사 체징(805 - 880)의 제자로 당에 유학 운거도옹(835 - 902)의 심인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 무위감사의 주지로 주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위사사적기』의 신라진평왕 39(617)에 원효가 관음사로 창건했다는 기록이나, 동국여지승람의 도선 창건설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형미는 궁예에게 살해당했던 친왕건세력이었다.

40) 『無爲寺事蹟記』

41) 문화재관리국, 1956.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 36.

수룩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尹武炳, 1958. 「國行水陸齋에 對하여」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教學術論文集』

李英華, 1993. 「朝鮮初期 佛教儀禮의 性格」 『清溪史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10권

이규대, 1994. 「朝鮮初期 佛教의 社會的 實態」 『國史館論叢』 (국사편찬위원회) 제 56집

42) 『經國大典』 권2, 戶典 諸田條

43) 진관사의 수리에 繕工提調 鄭某을 파견하고, 藝曹에게 조치하여 주현의 공물을 防納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世宗實錄』권124, 1449(세종31)년 5월 癸未條> 기와를 굽는 작업에 동원된 부역 僧軍만 해도 500명에 이르렀고, 준공 후 참여 僧 218 명을 大禪師에 除授할 정도였다. <『文宗實錄』 권1, 1450(문종 즉위)년 3월 丁未條> 또한 준공식에는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文宗實錄』 권7, 1451(문종 원)년 5월 乙卯條>, 진관수룩사의 준공에 참여한 승려 218명에게 大禪師를 제수하기도 하였다. <『文宗實錄』권6, 1451(문종 원)년 4월 丁酉條>

데에 따른 특혜였다⁴⁴⁾. 수륙사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자복사의 경우와 유사하였다⁴⁵⁾. 실제로 자복사의 位田稅에서 생산된 米豆로써 先王·先后를 위한 수륙재를 베풀기도 하였던 것이다⁴⁶⁾. 결국, 조선전기에 자복사와 수륙사는 그 성격과 역할에서 매우 흡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조선전기 무위사는 태종과 세종대에 자복사와 수륙사로 지정되면서 寺勢가 확장되었고, 효령대군의 후원을 받아 극락전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무위사가 자리잡은 남해 연안지역은 왜구의 잦은 노략질로 그 피해가 심각한 곳이었다. 왜구의 방화로 백련사는 폐사가 되고 말았으며⁴⁷⁾, 연안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고려말·조선초에 아미타신앙과 지장신앙이 성행한 것도 왜구의 극심한 약탈을 사회적 배경으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륙사로 공인된 무위사에 대응전이 아닌 극락전이 건립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극락전의 본존불인 아미타여래는 서방극락정토를 주재자로서 亡者의 명복을 기원하는 수륙재에 가장 어울리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후 무위사 극락전 안에 목조아미타삼존불이 모셔지고⁴⁸⁾ 후불벽화의 주제로 그려진 아미타삼존도에서 대세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을 협시로 배치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사상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Ⅲ. 極樂殿 後佛壁畫의 조성배경

무위사 극락전에 후불벽화가 조성된 것은 성종 7년(1476)의 일이었다⁴⁹⁾. 극락전이 건립된 지 46년만의 불사였다. 후불벽은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는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벽화는 후불벽의 양면에 조성되었다. 전면에는 阿彌陀極樂會圖가 후면에는 白衣觀

44) 『世宗實錄』권24, 1424(세종6)년 5월 癸酉條. 禮曹啓 江原道江陵上院寺 乃水陸社 革除未便 請革教宗 屬全羅道全州景福寺 於上院寺元屬 田一百四十結 加給六十結 恒養僧一百 從之

45) 주 34, 35, 36, 37

46) 『성종실록』권 성종23)년 12월 戊午條

47) 왜적이 탐진(耽津)을 침구(侵寇)하여 만덕사(萬德寺)를 불태웠다. (『太宗實錄』권14, 1407(태종 7)년 12월 戊子條)

48) 순천대학교박물관, 1995, 『迦智山 寶林寺』(장흥군), 56 - 57.

49) 문화재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3, 『康津無爲寺極樂殿修理報告書』 36.

音菩薩圖가 그려졌는데, 특히 아미타극락회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畵記⁵⁰⁾가 남아있다.

C-① <향우측 하단면>⁵¹⁾

成化十二年丙申四月初吉畵成」無量壽如來觀世音地藏菩薩」
 大施首 許順」永伊」元識」黃梅」尙行」乃乳」法峯」智雄」(이상 제1단)
 觀南非」檢成於加伊」山加粉德」徐乙京兩主」姜晶兩主」徐得涼兩主」義修九月」(이상 제2단)
 彖德」莫加」莫德」老西非」金得常兩主」前司正金生禮兩主」朴成明兩主」(이상 제3단)
 畵員 大禪師海蓮」大禪師善義」竹林」 化主洪悅」化主學准」(이상 제4단)

C-② <향좌측 하단면>

前牙山縣監姜奎」康津郡夫人趙氏」
 金尊 兩主」崔汀」帝釋」餘福萬」粉德」珊瑚兩主」洪仲寶兩主」(이상 제1단)
 禹長壽兩主」奉今」朴梅」金利丁兩主」祿德」金小山兩主」金貴生兩主」張老伊兩主」(이상 제2단)
 李春癸」毛里」崔得富」粉伊」崔淋同」學非」吳介叱同」古音德」李春生兩主」宋莫金兩主」
 朴永文兩主」(이상 제3단)
 林得萬兩主」洪太山兩主」金貴山兩主」姜自明」延德」李存義兩主」姜彥兩主」仇叱金兩主」
 金中山兩主」張乙鄉兩主」(이상 제4단)
 林仲存兩主」金所伊」寶背」金石蘭兩主」李從」趙命吉兩主」洪仲寶兩主」朴泉兩主」得伊」
 九月者叱西非」(이상 제5단)

50) 불화에 기재된 畵記는 불화의 명칭과 조성시기, 봉안장소, 緣化秩과 施主秩, 山中秩의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연화질은 불화 조성 불사에 역할을 담당하여 참여한 사람들의 소임과 명단을 말하는 것이다. 시주 질은 불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시주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뜻하는데, 이를 통하여 불화 구성에 소요된 물품의 종류와 시주한 사람들의 신분계층을 살필 수 있다. 산중질은 당시 그 사찰에 몸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직책, 직위와 명단이다. 이를 통하여 僧伽의 조직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畵記는 기재양식과 내용이 각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화를 이해하는 1차 사료이다. (洪潤 植 편, 1995, 『한국불화 화기집』 (가람사연구소) 1, 3-4)

51) 화기의 내용은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목포대학교박물관 1989, 『전남의 사찰』 (전라남도) I, 47-48)의 화기를 인용한바 있었다. 그런데 장충식의 논고(장충식, 2001, 「무위사 벽화 백의관음고」, 『정토교와 한국문화』, 52-53)가 가장 최근에 정리된 무위사 화기에 대한 견해이기에 본고에서는 후자의 자료를 따랐다.

成化 12년은 성종 7년(1476)에 해당한다. 후불벽화의 형식은 無量壽如來·觀世菩薩·地藏菩薩을 그린 아미타삼존도로서, 지장보살이 大勢至菩薩을 대신하여 아미타여래의 협시불로 채택된 특징을 보여준다. 벽화를 그린 인물은 畫員⁵²⁾ 大禪師 海蓮과 善義·竹林이다⁵³⁾. 이 외에도 화기에는 벽화를 조성하는데 후원한 수 십 명의 人名이 기재되었는데, 大施首 許順, 前牙山縣監 姜耆, 康津郡夫人 趙氏 등의 양반, 승려와 양인, 노비에 이르는 다양한 신분구성을 보여준다⁵⁴⁾.

먼저, 양반신분으로 생각되는 前牙山縣監 姜耆 (1408 ~ 1460)이 주목된다. 그의 가계는 진주 강씨로 확인된다⁵⁵⁾. 강질은 음직이나 무과를 통해 출사한⁵⁶⁾ 뒤에 司憲府監察(1429)과 綾城縣令(1440)·靑山縣監의 관직을 차례로 역임⁵⁷⁾한 인물이었다. 강질의 증조부 姜筮(1342 ~ 1419)는 음서로 출사한 뒤 공양왕 3년(1391) 경상도병마도절제사를 지냈고, 태종대에는 의정부찬성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무신이었다. 강질의 조부 姜詮(1365 ~ 1427)은 공민왕대에 벼슬이 감찰어사까지 올랐지만, 조선이 건국되자 진양으로 낙향하였다. 강질의 가계가 강진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父 姜信德(1398 ~ 1442)이 道康金氏와 혼인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강질의 아우 耆(1412 ~ 1470)도 道康 趙氏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도강김씨와 도강조씨는 모두 강진의 유력한 토착세력이었다. 따라서 강질의 가계는 아버지 대에 강진으로 낙향한 뒤에, 이곳의 유력한 토착세력인 도강김씨와 도강조씨와의 혼인을 통해 유력한 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⁸⁾.

한편 진주 강씨는 효령대군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다. 효령대군의 1남 誼城君 案(1411 ~ 1481)는 5남 3녀를 두었는데, 이들 중 5남 蓬城君 恒(1445 ~ 1484)이 郡守 姜溪의 딸과 혼인

52) 불화를 그렸던 화가들의 명칭은 시기별, 지역별, 分掌別로 차이가 있었다. 고려불화에는 畫師, 色員, 畫工, 畫手의 명칭이 보이며, 金魚, 畫士, 龍眼, 敬畫, 片手, 良工 등이 조선시대의 불화화기에 나타나 있다.

53) 장충식, 2001, 「앞글」 (주 42) 53.

54) 무위사 화기에는 양반과 양인, 승려, 노비와 부녀자 등의 다양한 신분계층이 참여하였음이 드러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줄고, 「앞글」 (주 3) 12~18.)

55) 지금까지 그의 행적과 생몰 년대는 미상으로 알려져왔다. 그런데 晉州姜氏 博士公派 大同譜에서 1408년부터 1460년까지 생존하였던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56) 문과방목에 그의 명단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음직이나 무과를 통해 출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7) 『世宗實錄』 권64, 1434(세종 16)년 5월 乙未條

58) 강질 이외에 화기에 등장하는 진주강씨 가운데 姜彦과 姜自明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강彦은 성종 21년(1490)에 역시 화기에 보이는 金中山·金貴山과 함께 吏曹와 兵曹로부터 직첩을 돌려 받고 있으며(『成宗實錄』 권242, 1490(성종 21)년 7월 丁巳條). 강자명은 태종 17년(1417)년에 통천군수를 지냈고(『太宗實錄』 권34, 1417(태종 17)년 8월 庚子條) 세종 4년(1422)에는 판고성현사를 역임하였다.(『世宗實錄』 권60, 1433(세종 15)년 4월 庚辰條)

하였고, 또 장녀는 姜子平과 결혼하였다. 강자평(1430 ~1486)은 증판서 徽의 아들로써 세조1년(1455)에는 원종공신에 책록되었으며, 벼슬이 工曹參議까지 이르렀고, 1485년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던 인물이었다⁵⁹⁾. 이와 같이 무위사의 불사에 효령대군은 극락전의 건립을 후원하였고, 벽화의 조성에는 그와 인척인 진주 강씨가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康津郡夫人 趙氏이다. 그의 가계는 도강의 유력한 토착세력인 道康趙氏⁶⁰⁾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외명부 宗親妻 중1품에 해당하는 郡夫人이 불화제작에 참여한 예는 일찍이 고려불화에서도 볼 수 있으며⁶¹⁾, 15세기에 해당하는 불화작품에 다음의 4점이 알려져 있다.

〈표 2〉 郡夫人이 시주한 15세기 불화

제작시기	작 품	시 주 자
15세기 추정	主夜神圖	功德主咸安郡夫人尹氏
1435년	觀經16觀變相圖	前□天台宗事와 益□郡夫人□氏 발원
1465년	李孟根 筆 觀經16觀變相圖	孝寧大君 補, 永膺大君夫人宋氏, 月山大君 金堤夫人趙氏, 大邱郡夫人秦氏, 仁川許氏 外
1476년	무위사 阿彌陀極樂會圖	康津郡夫人趙氏 外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함안·익□·대구·김제·인천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⁶²⁾. 군부인들이 후원한 불화의 주제는 관경변상도와 아미타계열의 작품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위사의 경우에도 사찰의 성격이 왕실의 천도를 기원한 국행수륙사였던만큼 郡夫人趙氏의 벽화불사 참여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인으로 생각되는 인물들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金氏(10명)·姜氏(4명)·朴氏(4명)·

59) 이는 康津縣 安逸戶長 姜濕이 효령대군이 대공덕주가 되어서 추진한 백련사의 중창불사에 왜 그토록 열성적이었던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생각된다.

60) 道康 趙氏는 고려시대에 趙寶(상장군, 추밀원사)가 道康伯에 봉작되면서 도강에 정착한 시조였는데, 정조 때 조대비의 명에 따라 본관을 풍양조씨로 고쳤던 것이다. 임진·정유란에는 慶南과 秉熙가 순절하기도 하는 도강의 유력 성씨로, 현재까지도 강진의 대표적인 씨족이다. (강진군, 1990, 『강진군의 마을사』-성전면편)

61) 延祐 7년명 地藏十王圖에 完山郡夫人 李氏가 시주하고 있다.

62) 한양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조선 전기에 진행된 불사가 한양보다는 각 지역에서 더 활발하였던 점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洪氏(4명) · 李氏(4명) · 崔氏(3명) · 趙氏(2명) · 林氏(2명) · 張氏(2명) · 徐氏(1명) · 許氏(1명) · 黃氏(1명) · 禹氏(1명) · 宋氏(1명) · 吳氏(1명)의 총 15개 가문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강진의 토착성씨였다⁶³⁾. 이외에 粉德 · 九月 등 20여명의 노비와 부녀자들로 생각되는 인물들이 극락전의 벽화조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무위사의 벽화는 낙향양반과 강진의 토착세력이 주도하고, 大禪師와 양인 · 부녀자, 부곡민과 노비가 동참한 불사였다. 이는 세종 12년에 건립된 바 있는 극락전의 경우에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신분들이 거듭된 무위사의 불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벽화의 조성에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우선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D. 世宗 14년(1432 - 필자 주) 2월에 효령대군이 성대하게 수륙재를 7일 동안 한강에서 개설하였다. 세종은 짬을 내려 주었고, 행사장에는 三壇이 높이 쌓아졌다. (효령은) 중 1천 여명에게 음식 대접을 하며 모두 보시를 주고, 길을 가는 행인에게 이르기까지 음식을 대접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날마다 백미(白米) 두어 섬을 강물 속에 던져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베풀었다. 나무기는 깃발과 일산이 강(江)을 덮으며, 북소리와 종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니, 서울안의 선비와 부녀(婦女)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양반의 부녀도 또한 더러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가지고 와서 공양하였고, 수륙재에는 남녀가 뒤섞여서 구별이 없었다. 前判官 吉師舜이 중지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世宗實錄』 권55, 1432(세종14)년 2월 癸卯條〉

『世宗實錄』에 기록된 수륙재의 행사장면이다. 효령대군이 주관한 수륙재에 길가는 행인 · 선비와 부녀자 · 양반의 부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남녀가 뒤섞여서 구별이 없었다고 기

6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7권 康津縣條에 기재된 강진지역의 토착성씨

지역	토착성씨	지역	토착성씨
道康	金.趙.黃.任.表.朴.玄.許	大谷	曹
耽津	崔.曹.兪.安.鄭.河.康.朴	七陽	白
平德	安.朴	永可	申 · 金
大口	徐	水雲(部曲)	曹 · 吳 · 崔

록되어 있다. 수륙재에 신분의 구별없이 수많은 인파가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禪·敎兩宗으로 불교계의 통폐합을 마무리한 국왕이었다⁶⁴⁾, 그런데도 수륙재의 중지를 요청하는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세종은 향을 하사하고 있다. 이는 당시 수륙재가 매우 중시되었으며, 왕실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계층을 갖는 행사였음을 잘 보여준다.

수륙재는 亡者를 追薦한다는 점에서는 七七齋나 忌晨齋와 성격이 유사하였다. 그렇지만, 칠칠재나 기신재가 특정인에 한정된 追薦齋인데 반하여 수륙재는 모든 망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共同追薦齋의 성격이 짙었다⁶⁵⁾. 그러하기에 太祖가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고려 王氏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觀音堀·見巖寺·三和寺에서 해마다 봄·가을에 수륙재를 設行⁶⁶⁾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륙재는 조선초기에 집중적으로 유행하였고⁶⁷⁾, 건국초기에 고려왕씨의 명복을 기원하던 데서 祖宗의 祈願齋로 그 성격이 변화해갔다. 그리고 세종 2년(1420)에 六典에 법제화되면서⁶⁸⁾ 수륙재는 家廟制와 더불어 공식적인 國喪制가 되었다. 이에 앞서 칠칠재와 기신재가 수륙재로 合設된 바 있기 때문에,⁶⁹⁾ 수륙재는 불교의례로는 공인된 유일한 喪禮가 된 것이다⁷⁰⁾. 따라서 비단 喪制 뿐만 아니라 전래의 불교의례를 대신하여 수륙재가 設行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왕실의 救病⁷¹⁾, 疫病 등 민간의 共同救病⁷²⁾,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⁷³⁾ 등의 경우에도 수륙재가 베풀어졌는데, 이는 공인된 祈願齋가 수륙재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D사료의 경우처럼 수륙재에 왕실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는 다양한 신분이 대거 참여하곤 하였던 것이다.

64) 『世宗實錄』 권24, 1424(세종6)년 4월 庚戌條

65) 李英華, 「朝鮮後期 佛教儀禮의 性格」 『清溪史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제 10권, 27.

66) 上命設水陸齋於觀音堀見巖寺三和寺 每春秋以爲常 爲前王朝王氏也 <『太祖實錄』 권7, 1395(태조 4)년 2월 戊子條>

67) 이영화, 「앞글」 (주 65) 27~28.

68) 『世宗實錄』 권 9, 1420(세종 2)년 9월 丁亥條; 『世宗實錄』 권4, 1450(문종 즉위)년 10월 甲寅條

69) 『世宗實錄』 권 9, 1420(세종2)년 9월 丁亥條

70) 이하 이영화, 「앞글」(주 65) 28~30.

71) 『세종실록』 권126, 1449(세종 31)년 11월 丁丑條; 『세종실록』 권127, 1450(세종 32)년 정월 庚子條

72) 『문종실록』 권 9, 1451(문종 1)년 9월 庚戌條

73) 세조 13년 李施愛亂으로 피살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수륙재가 열렸다. (『세조실록』 권 42, 1467(세조 13)년 6월 乙未條

강진지역은 고려 말 이래 왜구의 노략질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위사가 수륙사로 지정되고 수륙제가 실행되자, 강진지역의 사람들은 신분의 구별 없이 무위사의 수륙제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⁷⁴⁾. 그리고 차츰 이들은 무위사 극락전을 수륙사라는 寺格에 걸맞게 莊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⁷⁵⁾. 그 결과 무위사는 극락전이 건립된 후 46년 만에 후불벽화의 화기에 기재된 수 십명의 인물들에 의하여 그 내부가 개조되고 阿彌陀後佛壁畫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 건립과 후불벽화의 조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전기의 역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위사에서 극락전과 후불벽화가 조성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 대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위사 극락전이 건립된 것은 세종 12년(1430)의 일이었다. 극락전의 건립은 指諭와 大化主, 그리고 施主가 주도하였다. 대화주에는 일반인들도 소수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이 승려였으며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시주로는 前左明을 비롯한 인물이 참여하였지만 자세한 것은 밝히지 못하였다. 무위사의 극락전 건립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지유였다.

74) 무위사에서는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71년, 현 서울대 소장) 등의 목판이 간행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1571년까지 수륙사로서의 무위사의 기능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75) 강진지역은 토착세력의 불사참여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후기 圓妙國師 了世(1163~1245)가 이끌던 白蓮結社의 중심도량인 백련사가 있었다. 백련결사에는 耽津의 토호세력과 지방수령, 최씨무인정권과 유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채상식, 1992 「고려후기 천태종의 백련사 결사」 『고려후기불교전개사 연구』(민족사) 243-246) ‘尊卑四衆’로 표현된 다양한 신분의 제자들이 배출되었다(受四衆之請 遊化然緣 僅三十妙手 度弟子三十有八人 凡創伽藍并蘭若五所 王公大人牧伯縣宰 尊卑四衆 題名入社者 三百餘人 (崔滋撰, 『白蓮社圓妙國師中眞塔碑』 『韓國金石總攬』卷上)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세종 8년(1430)에 개시된 백련사의 불사에도 康津縣 安逸戶長 姜濕과 長興府人 前都官佐郎 曹隨 등이 지역의 토착세력이 가장 앞장을 섰던 것이다. 백련사의 신앙전통은 무위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조계종이던 무위사가 14세기초에 백련사의 영향을 받아 천태종 계통의 사찰로 그 성격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 천태종 소속의 자복사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된다. 원래 조계종 소속의 사찰이던 무위사가 태종대에 천태종 소속의 자복사로 지정된 것이 백련사의 영향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高翊晉, 『白蓮社의 思想전통과 天頊의 著述問題』 『佛教學報』16, 1979. 12, 동국대불교문화연구소) ; 佛敎史學會編, 『高麗後期佛敎展開史研究』(民族史, 1986)에 재수록 / 蔡尙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結社』(『韓國史論』5, 1979. 1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佛敎史學會編, 『高麗後期佛敎展開史研究』(民族史, 1986)에 재수록)

지유의 대부분은 승려였으며, 이 가운데에는 왕실과 밀착된 사찰에서 활동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유는 木手가 아닌 化主 정도로 그 성격이 이해된다. 지유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孝寧은 孝寧大君 李補와 동일인물로 믿어진다. 효령대군은 조선전기 대부분의 불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한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강진에서 8년 동안 머물렀는가 하면 백련사의 불사를 주도하였던 것이다.

무위사의 극락전은 同寺刹이 資福寺와 水陸社로 지정된 데 힘입은 불사였다. 자복사는 왕실의 명복을 기원하는 원찰의 성격을 지닌 사찰로서, 각종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다. 수륙사는 수륙재를 베풀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사찰이었다. 수륙재는 적을 포함한 전망자와 모든 망령을 위로하는 불교의식이었다. 수륙사로 공인된 사찰은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자복사와 수륙사로 지정된 무위사도 역시 국가적 지원이 뒤따랐다고 믿어지며, 이러한 배경에서 효령대군의 무위사 불사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무위사 극락전에 후불벽화가 조성된 것은 성종 7(1476)의 일이었다.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는 강진으로 낙향한 양반과 토착세력이 주도하고 大禪師와 양인·부녀자, 부곡민과 노비가 동참한 불사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위사가 수륙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수륙사에서 베풀어지는 수륙재는 모든 망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왕실부터 서민에 이르는 폭넓은 참여계층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 2년에 수륙재가 공인된 유일한 喪禮가 되면서, 왕실의 救病부터 전염병의 방지를 기원하는 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과 참여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무위사가 자리잡은 남해 연안지역은 왜구의 약탈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이 당시에 아미타신앙과 지장신앙이 성행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왜구로부터 당하는 혹독한 고초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이 깔려있었다. 무위사가 수륙사로 지정되고, 여기에 대응전이 아닌 아미타여래를 본존불로 하는 극락전이 건립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이후 강진지역의 사람들은 신분의 구별 없이 무위사의 수륙재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차츰 무위사 극락전을 수륙사라는 寺格에 걸맞게 장엄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무위사 극락전이 건립된 후 46년 만에 극락전의 내부가 개조되고, 아미타후불벽화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A Study on the Sources of Creativity in Buddhist Mural Paintings of Muwisa and Geungnakjeon in Gangjin

Bae Jong - mi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urces of restoring of Geungnakjeon(極樂殿) and creation of the buddhist mural paintings(後佛壁畫) of Muwisa(無爲寺) in Gangjin(康津).

Muwisa Geungnakjeon was constructed in 1430(in the twelfth year of King Sejong's(世宗)reign). At that time, however, the buddhism was strictly represse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some questions such as how Geungnakjeon could be constructed and who actually promoted the work.

Jiyu(指諭), Great sponsor(大化主) and Donator(施主) played a leading part in constructing Geungnakjeon. It was Jiyu who wa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m. Especially Jiyu, Hyoryeong(孝寧) is believed to be the actual prince Hyoryong(孝寧大君), I Bo(李補).

The construction of Muwisa was held of the part of Jaboksa(資福寺) and Suryuksa(水陸社). Jaboksa was the temple to pray for the heavenly bliss to the royal family. Suryuksa was the specially authorized temple with a purpose to serve Suryuk ritual(水陸齋). Suryuk ritual was the Buddhist one to console dead and those dead in battles including the enemies. That is why Jaboksa and Suryuksa were be supported in various ways by Josun dynasty(朝鮮). With all these reasons, It is natural for Hyoryeong to take part in the construction of Muwisa.

The home - confined Yangban(落鄉兩班) together with natives of Gangjin(土着勢力) organized the hind Amitabha Mural Painting(阿彌陀後佛壁畫) at Muwisa Kuknakjon and the Great Zen Mentors(大禪師), the Common People(良人), the Women(婦女子), the Bugokmin(部曲民-the lower class) and the Nobi(奴婢 - the slave class) took part in it. Because Suryuk ritual performed at Suryuksa had a spiritual purpose it could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all kinds of social levels.

Moreover, in the second year of King Sejong's reign Suryuk ritual was getting a bigger role in praying for the cure of the royal family and the prevention of an infectious diseases by turning into the only one authorized ritual.

The southern coastal region where the Muwisa was, was badly damaged by Japanese marauders(倭寇). At that time the Amitabha faith(阿彌陀信仰) and the Pure Land faith(淨土信仰) prevailed throughout the country. They wished to escape the severe suffering from the Japanese pirate raiders. That is why Muwisa was authorized as Suryuksa and why Geungnakjeon was constructed in which there was not Deaungjeon(大雄殿) but Amitabba(阿彌陀如來) as main Buddha(本尊佛).

Therefore, it was believed that people in Gangjin were comforted by participating in Suryuk ritual. And gradually people began to feel the same and that helped to make Geungnakjeon a magnificent place, suitable to the purpose of the temple as Suruksa. As a result after 46 years of Geungnakjeon's construction, it's interior was reorganized and the hind Amitabha Mural Painting could be built.